

“랩으로 자기 소개…영어 울렁증 사라졌어요”

전남도 ‘원어민 영어 캠프’ 가 보니

중학생 156명 음악·미술·요리 배우며 ‘생생 학습’

“Make your own Rap song(여러 분만의 랩을 만들어 보세요).”
원어민 강사 제시카(여·22·미주리 주립대)씨가 자신이 직접 만든 영어 랩을 부르자 12명의 학생들도 돌아가며 자신만의 랩을 열창했다. 제시카의 수업은 라임(rhyme·음운)이 맞는 단어를 조합·나열해 자기 소개를 랩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최고의 이기률을 끌었다.

30도를 훌쩍 넘는 땅볕더위가 이어
지 1인 다양구 저나도린대한 교전

신 1월 남양군 선남도립대학 교정.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무더운 날씨
에도 '2010 전남도 영어체험캠프'라고 쓰여진 대학본부에는 활기찬 기운
이 감돌았다.

지난달 27일 영어체험 2캠프인 전남도립대학에 입소한 156명의 전남 지역 중학생들은 입소 6일째가 되자 파란 눈의 외국인 강사와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거나 얘기를 나누며 영어에 전용된 모습을 보였다.

12개의 강의실에서 음악·미술·요리·패션·체육 등을 배우던 학생들은



담양군 전남도립대학 3층 ‘Around the World’강의실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 애슐리씨와 함께 세계지도를 그리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고 있다. /담양=최현배기자 choi@

담양=최현배기자 choi

야기하고 지내다 보니 양
쉽게 느껴진다”며 “앞으
을 만나면 먼저 이야기할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
요리 실습을 겸한 영어
인 1층 학교 조리실에선
크리스틴(여·23·미주리)
학생 12명이 ‘샌드위치’와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국 범문이 처음이라

씨는 “미국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한국 학생들이 훨씬 더 순수하고 착하다”며 “적극적으로 배우려 학교 2학년 780명이 각 7박8일과 9박 10일동안 영어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는 자세를 보여 모두에게 10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든 ‘전남도 영어체험캠프’는 전남도립대·전남과학대·대불대·남도국제교육원·청소년수련원 등 5곳에서 방학동안 전남지역 초등학교 6학년 780명과 중

이들을 지도하는 원어민 강사는 미국 미주리 주립대와 포틀랜드 주립대에서 온 70명과 도내 학교 영어보조교사 5명이며, 현직 교사나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돼 교육의 내용이나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의금 20만원, 리베이트 아니다”

보건부, 쌍벌제 예외 범위 대체적 합의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설·추석 등 명절 선물은 10만원까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

을 면책기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

의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리베이트로 인정치 않고 처벌을 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전남도, 방학중 결식 아동 1만 3천명 급식 지원

전남도는 여름방학 동안 결식 우려 있는 도내 아동 1만2898명에게 급비로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밝혔다.

전남도는 방과 후 교육과 종식을 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주·부식과 반찬을 공급하는 급식소를 방문해 식 우려 아동이 없는지 파악하는 한편 급식 메뉴의 영양과 위생 관리 실태, 아동보호, 학습지도 과정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급식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상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자율기자 dok2000@

한편 급식 메뉴의 영양과 위생관련
실태, 아동보호, 학습지도 과정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급식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점검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상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고기온은 30~35도로 열대야 현상과 폭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짬통더위는 계속되다가 6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기온이 1~2도 가량 낮아질 전망이지만, 7일에는 다시 고온의 온대 모던의

일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잠시 내리기도 하겠지만 이번 한 주도 폭염주의보 발효와 해제가 지속되고 열대야가 나타나 찜통더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